

예장연, '제95회 3.1절 국가기도회' 개최

한국교회, 선조들의 신앙 이어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웅 목사) 이하 예장연은 지난달 28일(금) 오전 11시 일산 별첨교회(김원식 목사)에서 '제95회 3.1절 국가기도회'를 개최, 한국 교회가 평화와 민족 구원의 정신,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예장연 가맹 교단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러진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통일, '국가와 지도자와 정계', '한국 경제의 회복과 복

지와 선교',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 '예장연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폭거와 압제 등 온갖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교회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선조들의 신앙을 오늘 의 한국 교회가 이어받기를 기도했다.

상임회장 이광웅 목사는 "불순종하면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제95회 3.1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한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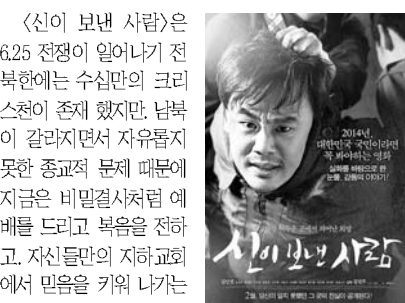
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말하고, "3.1절 열사들처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다짐하고 일하자"고 강조했다.

예장연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오늘을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실상 분단 68년의 현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3.1 운동은 종교와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보인 자주와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 나타난 운동이었다"면서 "33인 가운데 절반인 16명의 기독교인이 이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 교회는 이번 바탕 위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먼저 교회 안의 갈등을 그치고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데 앞장서서 민족 구원의 정신 계승 3.1 운동과 기독교 사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교류의 확대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정직, 정결, 봉사, 화합의 실천 덕목 실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짐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신앙의 자유 절감



〈신이 보낸 사람〉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에는 수십만의 크리스천이 존재 했지만 남북이 갈라지면서 자유롭지 못한 종교적 문제 때문에 지금은 비밀결사처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만의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북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북한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기독교적 신앙과 이해야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非)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영화에 대해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북한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한 영화로 그 상황은 기독교인뿐 아니

라 북한 주민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 '철호'(김인권)는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아배를 잃는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고백을 하고 풀려났지만, 그의 아내는 모진 고문에서도 자신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순교자'의 대열에 선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철호는 자신이 속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모두 이끌고 탈북해 남한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찬찬히 실행시켜 나간다.

〈신이 보낸 사람〉의 시사회가 끝난 후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 "절망을 정면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보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 영화가 개봉 첫주에 2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이 신이 보낸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영화를 본, 또 보는 관객들이 불편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가 성공이다. 그래서 돌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



바흐솔리스트서울 바흐 '요한수난곡' 원전연주

시대악기로 '요한수난곡' 재연

바흐솔리스트서울 (Bachsolisten Seoul)

〈음악감독 : 박승희, 지휘: 김선아, 오케스트라〉

국내 원전연주의 역사는 10년이 갓 넘었으며 성악에 비해 기악연주자들의 국내지립도는 특히 낮아 그 동안 바흐 연주 단체들은 주요한 연주자들, 특히 관악기 연주자들을 일보이나 유럽에서 외국 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연주자들 만으로도 대규모 바흐의 성악작품의 원전연주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바흐솔리스트서울은 2005년 창단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연주자들을 발굴하여 무대에 올렸으며 이제 한국연주자들의 대규모 시대악기 연주에 도전해 나갔다.

2011년부터 '바흐카타타 연주시리즈'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 바흐솔리스트서울은 2011년에 바흐플레기움체렌의 마시악 스텔라, 2012년에 일 가르델리노의 료 테라카도에 이어 2013년 라프티방드의 지기스발트 쿠이켄을 초청하여 진일보 된 바흐카타타의 세계를 보여주었고, 고음악 대가들과의 지속적인 멘토십을 통해 바흐의 음악을 깊이 탐구해 온 지휘자 김선아, 음악감독 박승희의 리더십은 바흐솔리스트서울의 탄탄한 기량의 성악 솔리스트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소규모 합창, 국내 외 한국인 원전악기 연

주자들로 이루어진 바흐솔리스트서울 바흐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번 기념비적인 바흐의 요한수난곡 연주를 통해 한국 고음악의 위상과 가능성을 고양시켜 줄 것이며 국내 바흐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J.S. 바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바로크 시대 전반의 작품을 연주하는 앙상블로서 지난 2006년 창단된 바흐솔리스트서울은 주로 독일에서 고음악과 오라토리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국내 외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시대연주와 학구적인 음악적 해석을 추구하는 고음악 전문 연주 단체이다.

지난 4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된 '요한수난곡' 원전연주는 더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폭설피해 시름 동해시민들 힘내세요!"

월드비전, SK그룹-동해시청과 폭설피해 긴급구호 나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동해복지관(관장 이명선)을 통해 SK그룹-동해시청과 함께 지난 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시 망상동 괴란마을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나섰다.

SK그룹이 후원한 물과 비상식량 등으로 구성된 긴급 식료품키트 500개는 동해시에 전달되어 폭설 피해 가정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난방용 등유 약 4만 리터(200가정 x 200리터)는 월드비전 동해복지관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저소득가정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SK그룹은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썬니(Sunny) 130여 명이 괴란마을을 내준 고립 가정 30세대를 위해 진입로 개척과 비닐하우스 건설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긴급구호지역인 동해시 망상동 괴란마을은 76가구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40% 이상 거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몇몇 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독거 어르신이 많이 평소에도 폭우와 홍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 이번 폭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 18일 피해상황 파악 당시 30세대가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을 정도로 심각했으며 비닐하우스 파손 및 가옥 등 추가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월드비전 동해복지관 이명선 관장은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시설봉사활동에 나서 준 SK그룹에 동해시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동해복지관은 1996년 3월부터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는 국내 각종 재해피해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키트 제작 및 전달작업을 월드비전과 2002년부터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Premium

“전국 27개 지점, 프리미엄 돌잔치 이벤트홀 No.1 까르르스타”

까르르스타 프레시데일리 출장뷔페

예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홈파티, 각종 모임
교회행사, 도시락, 야외행사, 밥차

※본 교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02)725-3535
<http://www.wellco.kr>

주요 서비스 브랜드

까르르스타

워터프린트 W웨딩

워터프린트 프레시 푸드마켓

본사 wellco wellness company

사보티노·카모시비스·오리엔탈 뷔페
까르르스타 프레시 데일리

신개념 뷔페식구내식당
까르르스푼

생활의 빈칸
'아브아 베이커리'